

주일 예배 순서

- 주현 후 마지막 주-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31:23-24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16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4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이 땅을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전쟁, 기근과 질병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깨어 있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희 안에 이 마음을 부어주셔서 세상과 사람과 환경에 눌러 사는 자가 아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용사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만이 아닌 능력을 나타내는 증인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마태복음 7:21-27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봉 헌(offering) 4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79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우소식

- 환영합니다

서진국장로님 • 서희숙권사님께서 뉴저지(베다니 UMC)에서 이사오셔서 저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 한국방문 : 기길숙성도님(아드님 결혼예식)과 이정숙성도님(가족방문)께서 3월 7일(월) 출국하십니다.

<기도제목>

- 이 땅의 교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가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지도록.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아프신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 김희원권사님/ 박현숙 성도님(좌골신경통) / 서희숙권사님(항암치료중)

• 허영희 성도님 시어머님/ 이진국권사님 어머니

<말씀묵상> 마태복음 7:21-27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1.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서 모른다고 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21-23절) 나는 지금 어떤 동기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각각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에게 큰 환난과 시험이 닥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24-27절) 나는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예수님 앞에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으로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너무도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런 비극을 겪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입니다. 주의 종으로 헌신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이 한 가지를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입증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고후13:5). 왜냐하면 믿음에 관해서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 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경건의 모양이나 결과들만을 가지고 자신이 믿음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